

##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통해서 본 수첸(舒群)의 『바다의 피안(海的彼岸)』

이강인\*

### 【목 차】

1. 서론
2. 수첸(舒群) 문학 특징과 선행연구 분석
  - 1) 중국 동북작가의 문학과 수첸(舒群)의 문학의 특징
  - 2) 선행연구 분석
3.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통해서 본 수첸(舒群) 소설
  - 1) 유토피아적 공간
  - 2) 열림과 닫힘의 공간
  - 3) 권력-탈식민지 공간
4. 결말

### 【초록】

수첸(舒群)이 쓴 단편소설 『바다의 피안』은 조국을 등지고 중국 ‘상하이’라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조선인의 삶을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수첸(舒群)은 동북작가 출신으로 자신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으로 조선인의 디아스포라를 진솔하게 작품으로 그려보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바다의 피안』이다. ‘피안(彼岸)’의 의미 설정에서 푸코가 일찍이 주장하였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과 서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키워드】 수첸(舒群), 피안, 조국, 헤테로토피아, 동북작가

\*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기타초빙교수 (whoru888@naver.com)

## 1. 서론

중국문학에서는 1917년부터 1949년 중국건국으로 현대문학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국의 현대문학은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현대문학사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sup>1)</sup> 한국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으며 근대를 열어 온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처럼 중국 역시 청의 붕괴와 일본의 침략으로 현대문학이 형성되는 과정이 비슷하다. 특히 만주국의 건립으로 인해 항전시기를 거치면서 이러저러한 일본의 영향을 받기는 매 한국이나 중국은 마찬가지다.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현대문학시기 형성과정과 한국의 현대문학 형성과정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중국과 한국의 작가들이 일구어 낸 작품들을 서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통적 지점에 놓여 있는 중국작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수첸(舒群)이라는 동북작가를 살펴보게 되었다. 수첸(舒群)은 동북출신 작가로서 당시 디아스포라로 조선에서 건너온 당시 조선인들과 같이 성장하고 생활해 오면서 타향에서 겪고 있는 조선인들의 삶의 애환을 중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작품을 창작하였다. 한국에서도 주로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당시 조선인들의 삶을 매우 거칠면서도 고통이 담겨져 있는 그러면서도 삶의 애증을 담아내는 작가들이 있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안수길 『북간도』, 이기영 『두만강』, 유치진 『흑룡강』 등 많은 작가들과 작품들을 익히 알고 있다. 이러한 교차점에서 공통점을 갖게 하는 중국의 작가들이 동북출신 작가들이 있다. 수첸(舒群)을 비롯하여 샤홍(蕭紅), 샤궈(蕭軍), 뤼빈지(駱賓基) 등 일부 작가군을 이루고 있다.<sup>2)</sup> 이들 역시 작품 속에서 간도지역으로 건너와 조국을 잃은 슬픔을 지니고 있는 조선인들의 애환을 그려내었는데 그 중에 수첸(舒群)이 대표적인 작가이다.

수첸(舒群)이 쓴 단편소설 『바다의 피안』은 식민지 조선을 등지고 중국 ‘상하이’라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조선인의 삶을 매우 감성적이면서도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수첸(舒群)은 왜 중국의 ‘상하이’를 ‘피안’으로 설정했는가이다. 이는 자신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경험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

1) 한국현대문학사의 기점에 대해 권영민 교수는 1896-1945년과 1945년 광복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로 정의한 것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다고 보고 있다. 권영민, 『1896-1945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4.

2) 張英은 동북작가들은 특별한 조직적 단체를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작품풍격인 디아스포라와 항전의식 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張英, 『現代東北作家群的當代命運和創作走向——後東北作家群尋蹤』, 遼寧師範大學 博士論文, 2016. p.1.

안(彼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이상향, 삶의 새로운 터전, 피난처 등의 의미를 띠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설정에서 우리는 푸코가 일찍이 주장하였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과 상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헤테로토피아’는 의미적 해석으로는 ‘다른 장소’, ‘유토피아적 현실 장소’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기존의 공간과 질서를 반영하면서도 그것에 간섭하면서도 다시 침식하고 다르게 다가오는 다름과 낯섬의 문제적 공간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토피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공간에서는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직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면, ‘헤테로토피아’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와 평행적이면서 수평적 관계를 지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실제로 이를 수 있는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은 또 다른 장소이자 세계이기에 수첸(舒群)의 『바다의 피안』과 공간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설 『바다의 피안』은 중국 상하이라는 구체적인 특정한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목적으로 하고 주인공과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와 현실로서의 ‘디스토피아’의 길항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이러한 슬픔과 긴장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뒤섞인 상태로서 병존하는 양상을 헤테로토피아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기존에 연구 분석되지 않은 삶의 공간적 지점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수첸(舒群) 소설의 특징인 동북작가들이 맞이한 현실과 허구의 혼재로서의 소설을 지향하는 작가 특유의 공간적 사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 2. 수첸(舒群) 문학 특징과 선행연구 분석

### 1) 중국 동북작가의 문학과 수첸(舒群)의 문학의 특징

중국 동북 지방은 구한말에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하며 살고 있었고 또한 조선인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선의 구국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었다. 특히 청국부터 함경북도의 농민들은 흉년이 들면 청나라가 입국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간을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와 개간을 하였다. 19세기 말 청나라가 봉금령 폐지하고, 1885년 만주 이주 금지령을 폐지함에 따라 중국 간도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 유입이 더욱 증가하였다. 20세기 초에는 일본의 수탈과 항일운동을 위해 계속

이주를 하였다.<sup>3)</sup>

주로 조선 사람과의 접촉이 일상화되는 동북 출신 작가들은 일본이 만주국을 건국하고 약탈을 일삼자 중국 타지방으로 망명하는 신세로 전락하였고 동북생활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작품 속에 조선인도 만주국의 피해 대상으로 묘사하였다.<sup>4)</sup> 내용으로 보면 동북의 물정에 애착을 표현하는 작품이나 중국 국내에서 연합항일이라는 시대적인 정신에 순응하여 동북 지방에서 벌여진 항일 활동을 제재로 하는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조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조선인이 부차적인 인물로 많이 나온다.

이에 비해 같은 배경공간을 둔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중국인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어느 정도 부정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한국작가들은 디아스포라라는 신분으로 중국 동북지방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을 보았기에 그들의 작품은 궁핍한 삶에 찌든 조선인들의 생활을 다루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는 조선인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났기 때문인데, 이후 일본의 만주국 건국이후 새로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sup>6)</sup> 만주국 건국 전에는 조선인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었던 만주로 다른 민족과 혼재하는 한 복수의 중심 지역이었지만, 만주국이 건국되면서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 역시 추방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만주국 국민으로 포섭되면서 여전히 개인적, 민족적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다.<sup>7)</sup>

기실 중국 현대소설에서는 조선인의 모습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주로 조선인과의 접촉이 일상화되는 동북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동북작가들은 일본의 만주국 건국에 따른 약탈이 심해지자 중국의 다른 지방으로 망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이 당시 동북지역에서 접했던 조선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기에 그들은 의식적으로 작품 속에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썼다. 따라서 조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이 작품에서 조선인은 부수적인 인물들이다.

이러한 작가들 중에 수쥔(舒群)의 작품에는 조선인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매우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인의 모습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린 작품으로는 『조국이 없는 아이들(沒有祖國的孩子)』(1936), 『바다의 피안(海的彼岸)』(1940)이

3) <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B%8F%84>. [2020.11.11]

4) 계곤, 「중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조선인의 양상-舒群과 駱賓基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한중 인문학회』, 제32회, 2013, p.158.

5) 이현정, 「샤오홍의 삶과 죽음의 장에서 묘사된 농민의 항일투쟁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학』, 제50호, p.78.

6) 박일우,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타자 이미지 연구 - 중국인 형상을 중심으로」, 국민대 박사논문, 2009.

7) 천춘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만주 공간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4, p.i

대표적이다.

수첸(舒群)의 첫 번째 소설인 『조국이 없는 아이들』은 중국의 9.18 만주사변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 주인공인 ‘나’가 바라보는 조선 소년 ‘궤리(果里)’는 10살 때 어머니를 따라 식민지 조선을 떠나 ‘자유’가 있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해 온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수첸(舒群)은 당시 조선인의 이미지가 중국과 같이 항일(抗日)이라는 길을 같이 가는 동료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첸(舒群)의 또 다른 단편 소설 『바다의 피안』은 중국 내륙으로 망명한 조선 혁명투사의 내면적인 세계와 애국정신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일본의 9.18중국 침략, 1932년 3.1 만주국 식민지 건국에 많은 중국인들은 자신의 조국을 잃어버린 조선인과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피난을 가기도 하였다.<sup>8)</sup>

소설 『바다의 피안』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화려함과 힘들고 혹독한 독립투사라는 현재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시키며 주인공의 비장함과 처량함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독립투사인 주인공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기 전에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나이 들고 연약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하여 캄캄함 밤 바닷가에서 만나고, 결국 10년 후 상하이에서 어렵게 다시 재회를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비록 두 모자는 어두운 여관방 안에서 서로 상봉을 하지만, 일본 순사의 감시로 불을 켜지 못한 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간단히 대화만 나누다 헤어진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보기 위해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계시는 여관방으로 가지만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남겨준 손수건을 지니고 슬퍼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본 글에서는 수첸(舒群)의 소설 『바다의 피안』을 하나의 매개체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작품과 달리 수첸(舒群)의 『바다의 피안』은 조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보기 드문 소설이기 때문이다.<sup>9)</sup> 또한 당시 일본 식민지 시대에 조선에서 또 다른 이상향의 공간인 ‘상하이’로 이주해간 조선인의 삶을 중심으로<sup>10)</sup> 중국인 작가의 시각에서 조선인들의 ‘헤테로토피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8) 계곤, 앞의 논문, p.158.

9) 수첸(舒群)은 동북 하얼빈 출신 작가로 한국독립운동가의 사적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피안’은 중국을 가리키며, 중국을 독립운동의 무대로 삼았기에 ‘피안’을 새로운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류나어우 외, 조성환 옮김, 『시간에 무감각한 두 남자』, 중국대표단편문학선, 씨네스트, 2016, p.10.

10) 대표적으로 주요섭의 「인력거꾼」(1925)과 「살인」(1925)은 이러한 상하이의 타락상과 어두운 도시의 이면을 식민지 하층민의 불우한 현실을 통해 비판적으로 담은 작품이다. 하상일, 「근대상해 이주 한국 문인의 상해 배경 문학작품 연구」, 『영주어문』, 제36집, 2017, p.222.

##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중국, 중국유학생의 논문, 한국근대작가에 대한 분석, 일본작품에 드러난 만주 관련 연구 자료를 활용하면서 ‘동북지역-만주’, ‘기타 중국지역-상하이’의 의미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으로 같은 공간적 배경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를 보면서 본 논문의 차별성을 보여 주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张英은 「现代东北作家群的当代命运和创作走向——后东北作家群寻踪」에서 수첸(舒群)의 주제를 항일전쟁 속의 어린아이의 형상 위주로 당시의 참혹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孙嘉忆은 「东北作家群小说的死亡叙事研究」에서 동북작가군을 위주로 전체적인 동북작가들의 작품경향을 사망을 위주로 한 당시 동북지역의 현실을 서술하는 정도의 글을 썼다. 林静怡의 논문 「抗战时期东北流亡文人的流亡体验与书写 (1931-1945)」도 동북작가군들의 타향살이의 근원이 일본침략이며 이것으로 인한 그들의 작품적 풍격을 고향의 그리움과 항일전쟁에 대한 작품성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 외의 중국논문들은 주로 동북작가군들에 대한 분석위주이며 수첸(舒群)의 작품분석에 대한 논문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연구경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국유학생들 역시 동북작가군위주의 논문들을 내었다. 대체적으로 논문경향을 살펴보면, 한국 유학생인 계곤은 2013년 「중국 현대 소설에 나타난 조선인의 양상 - 舒群과 駱賓基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에 수첸(舒群)을 중심으로 한 동북작가들의 특징을 잘 설명하였다. 2011년에 진건은 「강경애와 소흥의 동북배경 소설 가운데 나타난 고난 비교 姜敬愛和蕭紅東北背景小說中苦難的比較」에서 한국작가 강경애와 동북작가 샤오홍(蕭紅)을 동북이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중국 동북지방을 배경으로 삼아 빈곤, 질병, 여성고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작품을 비교분석하였다. 2016년에 한샤오(韓曉) 뉴린제(牛林杰)이 「한국인 ‘위안부’ 제재 중국현대문학작품에 대한 고찰」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이한 현상은 동북 간도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 논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 2015년에 최은주가 「타자화된 여성들, 일본 영화 속 ‘조선인 위안부’ 표상 - 오하루(お春)와 쓰유크(つゆ子)의 사이에서」 일본작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조선인 위안부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위안부라는 성적 대상과 이를 표상화한 영화를 잘 해석해내었다. 한중일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논문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일본 논문경향과 비슷한데, 주로 만주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선인들의 삶을 분석하는 논문위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에 백승숙이 「만주, 담론의 불

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 1940년대 만주 소재 희곡, 유치진의 「흑룡강」을 중심으로」에서 유치진이 희곡으로 묘사한 만주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논문들은 그래도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으로 중국 동북지역인 간도 지역을 배경으로 공간적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논문들은 여전히 동북작가들의 특징들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통한 분석은 발견되지 못했다. 이에 본 글이 조선인의 삶의 의식을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3.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통해서 본 수첸(舒群) 소설 『바다의 피안』

푸코는 1966년 12월에 라디오 채널 프랑스-퀴투르의 프로그램인 ‘프랑스 문화’에 출연하여 ‘유토피아적 몸’과 ‘헤테로토피아’를 강의하며 최초로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67년 3월에 프랑스의 건축연구회의 회의에서 논문 ‘다른 공간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는 여기서 자신이 앞서 언급하였던 헤테로토피아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이후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은 문학, 건축, 디자인, 영상 등 다양한 이론적 틀로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갔으며 푸코 자신이 정립하지 않았던 이론들이 더욱 심미적 의미와 해석의 개념어로 활용되었다.<sup>11)</sup>

푸코는 자신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종교적 신념이 굴절 등에 따라 헤테로토피아였던 장소의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헤테로토피아가 생겨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푸코는 동일한 사회문화권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의 성향과 경험 내용에 따라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푸코는 유럽문화에서 묘지를 예로 들면서 당사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영원성의 헤테로토피아 혹은 한시적 헤테로토피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푸코는 더 나아가 현실공간을 더 환상적인 공간으로 확대하면서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로 정의했으면 서도 이와 반대로 현실을 무질서한 공간으로 낮추어 보는 보정의 헤테로토피아로 정의하기도 하였다.<sup>12)</sup>

푸코가 나열한 다양한 공간의 헤테로토피아는 각각 개별적 공간이면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즉 당대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조건 속에서 혹은 개인의 내밀

11)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pp.5-6.

12) 푸코가 정의한 ‘헤테로토피아’는 짧은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다. 위의 책, pp.11-26.

한 경험과 의식적 지향 속에서 질적으로 다르게 의미 지워진 장소라는 것이다. 그들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여 왔고 우리들의 삶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또한 독특하게 그 의미적 작용을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물리적 좌표를 갖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긴장을 이끌어 내는 심미적 장소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다.

헤테로토피아는 철학자 미셸 푸코가 유토피아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독자적인 개념화를 시도했던 미완의 개념이다.<sup>13)</sup>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곳을 의미하며 일종의 현실화된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온갖 장소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 자기 이외의 모든 장소에 맞서 그것들을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반공간’이다. 이 개념은 모든 문화와 사회에 존재하며 그 존재 방식이나 작동방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한 장소에 여러 개의 공간과 기능을 겹쳐 놓을 수도 있다. 이 공간은 전통적인 시간과의 단절을 동반하기도 하며, 스스로 주변 세계에 대해 고립시키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기도 해서 열려 있는 동시에 닫혀있는 공간이다. 또한 이 공간은 확고하게 질서 잡힌 것으로 여겨져 온 제국의 공간을 뒤죽박죽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식으로 현실 공간을 ‘다르게 보이도록’한다.

위에서 상술했던 푸코의 미완의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는 기본정의대로 유토피아를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결국 유토피아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적 공간을 ‘피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글은 수천(舒群)의 『바다의 피안』을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푸코가 설명하고 있는 여러 공간적 정의에서 소설과 의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을 찾아 설정한 공간이다. 이는 첫째로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둘째는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낳는 공간으로, 셋째는 권력-탈식민지 공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간 영역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소설 속의 이미지, 곧 소설이라는 작가가 구성한 공간 안에 구현되는 이질적 공간들 중 일부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그 속의 메시지를 중층화하기 위한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며 질적으로 다른 공간 이미지의 투영성을 잘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공간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 1) 유토피아적 공간

13) 푸코는 유토피아를 어떤 장소도 갖지 않는 것을 위해서만 남겨져야 할 장소로 정의하면서 이와는 다른 장소인 ‘헤테로토피아’를 꿈꾸었다. 위의 책, p.14.



새로운 이상향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양식의 공간으로서 찾아 가려는 중국은 이들에게는 낯섬과 차별의 공간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자유를 찾아 동북지방인 ‘간도’로 떠나고 중국의 ‘상하이’로 떠나는 일이 많았다. 한국인들에게 당시 중국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 갈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여기고 그곳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곳 역시 낯섬과 차별의 공간으로 그들에게 작동하였다. 실제로 간도지역은 한국인들이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곳으로 힘든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삶의 실천적 공간이었다.

한국의 소설을 보면 최서해의 『탈출기』, 한설야의 『홍수』, 한수길의 『새벽』 등은 이러한 당시 간도이주 조선인들의 힘든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수첸 역시 동북지역 출신 작가로 어린 시절 함께 자라고 보았던 당시 한국인들의 비참한 삶을 자신의 소설로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 상하이로 이주한 한국 문인으로는 신채호, 이광수, 주요섭, 주요한, 심훈, 최독견, 피천득, 김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당시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신문과 잡지 등에 상하이를 주제로 한 시, 소설, 산문 등을 다수 발표하였다.<sup>14)</sup>

수첸(舒群)의 소설 『바다의 피안』에서도 상하이로 떠나려는 독립군인 아들이 엄마와의 이별에서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헤테로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 이 둘의 대화에는 바다 너머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곳이며 그곳은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말미에는 이 둘은 결코 유토피아적 공간에서 만남을 이루지 못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감히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먼 곳만 바라봤다. 자유와 행복과 그들의 모든 이상이 바라보던 하늘과 바다가 연결된 선 밖, 즉 바다의 피안에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자 모친이 말문을 열었다.

“저쪽이 중국이지?”

그가 묵인하자 모친이 다시 물었다.

“내일 저쪽으로 가니?”

“네, 내일 저쪽으로 갑니다.”

(중략)

순간 그녀는 무정한 바다가 두 사람을 갈라놓아 자신은 바다 이쪽에 있고 아들은 바다 저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sup>15)</sup>

14) 하상일, 「근대 상해 이주 한국 문인의 상해 배경 문학작품 연구」, 『영주어문』, 제36집, 2017, p. 209.

독립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타국인 중국 상하이로 떠나기 전 두 모녀는 한국의 바다에서 이별의 대화를 나눈다. 여기에서 ‘자유와 행복과 그들의 모든 이상이 바라보던 하늘과 바다가 연결된 선 밖, 즉 바다의 피안에 있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 되는 것은 이들은 결국 이쪽 선 밖에 있는 ‘피안’에서 또 다른 공간인 ‘피안’으로 가고자 하는 희망과 열망이 표현된다. 푸코는 현실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상향인 ‘유토피아’는 또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를 통해 이상적 공간을 실현하고자 하였다.<sup>15)</sup> 즉, 유토피아적 공간을 현재의 세계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소설은 독립투사 아들과 엄마의 이별은 ‘피안(彼岸)’이라는 헤테로토피아를 상상하며 새로운 삶을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둘에게는 결코 유토피아적 공간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아픈 이별을 슬퍼한다.

## 2)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낳는 공간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열림과 닫힘의 공간으로 공간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체계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이 열림과 닫힘의 공간에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없으며 또한 강제로 들어가고 특정한 의례나 정결의식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외부 세계에 닫혀 있지 않고 전면적으로 열려 있는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도 있다. 누구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것은 환상일 뿐, 어디에도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헤테로토피아는 열린 장소이지만 우리를 계속적으로 외부에 묶어두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림과 닫힘의 공간은 실제로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열려 있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다가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슬픔도 안겨주는 공간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일제 강점기의 중국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열림과 닫힘의 헤테로토피아인 것이다. 당시 한국 땅에서 동북지역 간도로 이주해 간 사람들에게는 이곳

15) 他们不敢相望, 只是望着远方. 自由, 幸福, 以及他们一切的理想, 仿佛就在所望的天与海相连的一线之外——海的彼岸. 久了, 她终于说话了: “那边就是中国吗?” 他默认了. 她又问: “明天, 你就是往那边去的吗?” “是的, 明天我就是往那边去的!” …………… 这一刹那间, 她仿佛看见了自己留在海的这边, 而他已在海边的那边, 这无情的海, 把他们隔离了. 『舒群文集』(1), 1982, 春风, p.179.

16)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pp.11-13.

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권력과 위계질서가 형성되었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심부와 주변부간의 갈등이 생성되고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해결되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상해지역 역시 동일한 공간적 의미가 작동하였다. 수첸(舒群)은 동북지역 작가이지만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상해로 이주해 왔다. 그는 이곳에서 상하이로 이주해온 한국인들을 보았고 이들을 통해 자신이 살았던 동북지역의 한국인들이 떠올라 소설을 쓰게 되었다. 그의 소설들은 이러한 동기가 발현된 작품들이다. 그의 소설 『바다의 피안』 역시 상하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 젊은 독립군의 이야기로서 그의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 다시 상하이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 이 곳 상해는 유토피아적 공간이면서도 열림과 닫힘의 공간으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푸코가 인식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열려있는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닫혀 있는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다시 상하이 구석구석까지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그는 다시 비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모친이 상하이에 오던 날 그는 모친을 영접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다.

(중략)

결국 그는 일본 밀정을 뒤따라가 모친이 목계 될 여관을 알아냈다. 그리고 3일 후 그는 도적 행색을 하고 모친의 방에 들어갔다.

밤이 깊은데다 등불까지 꺼져 있어 온 방 안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친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며칠 동안의 기대와 초조함으로 병이 재발한 것이었다. 모친의 신음 소리는 인생의 최후가 가까웠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sup>17)</sup>

소설 『바다의 피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중국 상하이의 공간은 자유를 찾아 떠난 주인공에게는 하나의 헤테로토피아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 찾아옴과 동시에 그에게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하나의 헤테로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밀정의 눈을 피해 배에서 내리는 어머니를 직접 마주할 수 없고 어머니가 묵고 있는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열림과 닫힘의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는 십여 년 만에 그리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밤늦게 어머니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어머니를 만나지만 어머니와의 오랜 회포를 풀 수가 없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17) 然而，这时候，日本的魔掌，又伸到上海的每一角落，除去朝鲜的叛徒，革命者，又过期秘密地生活。……结果，他还是跟着日本的侦探，从他们的足迹上，找到他母亲所住的旅馆。三天以后，他以盗贼的行动，到了他母亲的房间。深夜的时候，屋内已熄了灯火，无尽的黑暗占有着一切。床上躺着他的母亲，为了几日来在盼待中所积起的焦虑，使她重返了旧病。她的呻吟，像是人生最后的失望的叹声。『舒群文集』(1)，1982，春风，pp.181-182.

컬 수 가 없으며,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할 수 가없었다. 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에 그는 둘에게 동시에 열려 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닫혀있는 공간에서 둘은 아픔  
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푸코는 그의 저서 『헤테로토피아』에서 이 열림과 닫힘의 공간에서는 ‘관용’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없으며 진지하게 소리 내 말할 수 없는 닫혀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  
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소설 『바다의 피안』에서 보여주는 두 모자의 대화  
는 푸코가 말하고 있는 헤테로토피아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진지하게 소리  
내어 말할 수 없는 막혀있고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그 어떠한 사랑의 대화마저도 막  
아버리는 어둡고 침울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 3) 권력-탈식민지의 공간

푸코와의 인터뷰를 실은 폴 래비나우의 내용은 그리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 역  
시 이러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이 매우 확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푸코  
의 헤테로토피아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면서도 또 부재할 수 있는  
또는 존재적 위치를 의미 없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  
는 ‘거울’을<sup>18)</sup> 예를 들면서 나에게 헤테로토피아처럼 주체의 재구성을 이룰 수 있다  
고 보았다. 거울을 보는 주체는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실재로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자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는  
거울 너머 가상의 공간의 안쪽에서부터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푸코는 ‘배’, 그것은 전형적인 헤테로토피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9)</sup> 배 없는 문  
명에서는 꿈이 고갈되고 정탐이 모험을 대신하며, 경찰이 해적을 대체하고 마는 것  
으로 보면서 배는 무한한 바다에 숙명적으로 내맡겨져 있는, 장소 없는 장소이자 떠  
다니는 공간으로서의 배, 19세기의 거대한 배가 이 항구 저 항구로 이 항로에서 저  
항로로 전전하면서 식민지들이 자기들의 정원 안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을 찾으러 그곳까지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배와 배가 이동하는 그곳이 바로 헤테  
로토피아인 것이다.

모친이 상하이에 오던 날 그는 모친을 영접하기 위해 부두로 나갔다. 그는 먼 길을  
떠나온 배가 황푸장으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여객 틈을 비집

18) 푸코는 거울을 유토피아로 보았다. 즉 장소 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 이상길 역, 『  
헤테로토피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pp.47-48.

19) 미셸 푸코, 이상길 역, 위의 책, 2014. p.26.

고 나오는 노파를 발견했다.

(중략)

게다가 모친의 시선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모친 뒤에서 일본 밀정이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친을 뒤쫓아 10년 동안 잡지 못한 '살인범인'인 그녀의 아들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랐다.<sup>20)</sup>

우리는 위의 두 장면에서 권력과 탈식민지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푸코가 '권력이 개개인들의 행위를 지배함으로써 그들을 종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집중하고 그는 권력의 속성보다 권력이 생기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즉 푸코는 권력이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개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언제나 감시와 규율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1)</sup> 상하이로 자신을 찾아오는 '어머니의 모습' 뒤에는 감시와 통제의 시선이 붙어 있는 일본의 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를 통한 권력의 감시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이에 지배받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다. 권력의 감시는 언제 규율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탈식민지의 공간은 '배'가 상징하는 의미로 식민지 개척을 위해 자신의 정원으로 간직하기 위해 소중한 것을 찾으러 가는 배의 헤테로토피아가 상하이로 아들을 찾아 멀리서 오는 한 노파의 마음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와 교차점을 이룬다. 배를 통한 자유의 획득과 아들을 보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푸코가 주장한 '또 다른 공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푸코는 어린아이의 부모 침대, 자신의 텐트 등으로 묘사한 헤테로토피아의 새로운 反공간<sup>22)</sup>이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간은 각종 사회공간의 배치양상과 그 경계, 즉 공간, 존재의 한계를 넘어 반공간 헤테로토피아가 현실의 무게에 의해 작동하게 됐을 때 드러나는 그 균열과 틈새를 인지하게 해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바깥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상상, 현실의 지평선이 열리게 된다.

20) 在母亲来到上海的那天, 他为了迎接而候在码头。他看见了经过海上长途的一只海轮, 驶进黄浦江, 停在码头; 也看见了从旅客之中被拥挤出来的一个老太婆: …… 而且不能不避免她的视线触到他的身上, 因为在他身后跟着日本的侦探, 他们希望从她的线索, 捉到一个十年不曾捉到的“杀人犯”-她的儿子。『舒群文集』(1), 1982, 春风, p.181.

21) 이강인, 「중국TV드라마에 나타나는 '일상의 권력'에 대한 푸코적 해석」, 『중국학』, 제63집, 2018, pp.284-285.

22)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pp.13-14.

#### 4. 결론

결론적으로 수췌(舒群)의 『바다의 피안』은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와의 연관성을 지니며 바다너머 있는 ‘피안’이 가지고 의미를 찾아내었다. 이 단편 소설은 조선인인 독립투사를 중심으로 중국 작가의 시선에서 조선인이 겪는 아픔과 슬픔을 매우 진솔하고 절제된 어조로 잘 표현하였다. 즉, 수췌(舒群)의 소설 『바다의 피안』을 중심으로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또 다른 이상향의 공간인 중국-간도와 상하이로 이주해간 조선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적인 헤테로토피아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수췌(舒群)의 『바다의 피안』을 크게 세 가지 공간적 특징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유토피아적 공간-공간적 실천의 공간, 낯섬과 차별의 공간으로, 둘째는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낳는 공간으로, 셋째는 권력-식민지 공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공간 영역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피안(彼岸)’은 단순히 조선의 너머에 있는 중국의 ‘간도’와 ‘상하이’가 아니라 주인공과 어머니가 살아가고 느끼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그들이 갈망하고 추구하였던 ‘다른 공간’적 가치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미정, 「망국과 실향의 한(恨), 만주 디아스포라를 돌아보다: 1930년대 '만주개척단'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172권, 2016, pp.40-72.
- 김순금, 「蕭紅의 空間意識에 대한 研究 - 『呼蘭河傳』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1집, 2016.
- 김인호, 「한말·일제강점기 조선인 지식인층의 원균 이미지 - 신문 및 잡지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21, 2015.
- 권영민, 『1896-1945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4.
- 류나어우 외, 조성환 옮김, 『시간에 무감각한 두 남자』, 중국대표단편문학선, 씨네스트, p.10. 2016.
-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2014, pp.13-14.
- 박남용·정유진, 「샤오홍(蕭紅)과 선충원(沈從文) 소설 속의 민속문화」, 『중국학연구』, 73, 2015.
- 박민미, 「푸코의 근대 권력 비판과 '성-주체」, 『시대와 철학』, 16, 2005.09
- 박승규, 「푸코의 근대적 권력과 "주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화"」, 『국민윤리연구』, 제49호, 2002.
- 백승숙, 「만주, 담론의 불안, 혹은 헤테로토피아」, 2015.
- 진 건, 「강경애와 소홍의 동북배경 소설 가운데 나타난 고난 비교 - 姜敬愛和蕭紅東北背景小說中苦難的比較」, 『한국문화기술』, 12, 2011.
- 이강인, 「중국TV드라마에 나타나는 '일상의 권력'에 대한 푸코적 해석」, 『중국학』, 제63집, 2018, pp.284-285.
- 최은주, 「타자화된 여성들, 일본 영화 속 '조선인 위안부' 표상 - 오하루(お春)와 쓰유코(つゆ子)의 사이에서」, 『일본학연구』, 44호, 2015.
- 하상일, 「근대 상해 이주 한국 문인의 상해 배경 문학작품 연구」, 『영주어문』, 제36집, 2017, p.209, p.222.
- 한샤오(韓曉)·뉴린제(牛林杰), 「한국인 '위안부', 제재 중국현대문학작품에대한고찰」, 『아시아문학연구』, 42, 2016.
- 张 英, 「现代东北作家群的当代命运和创作走向——后东北作家群寻踪」, 遼寧師範大學 博士論文, 2016, p.1
- 郑丽娜, 「论舒群的小说创作及其历史贡献」,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2013.
- 穆佳杰, 「舒群研究会及舒群中学揭牌仪式在哈尔滨市阿城区举行」, 『民族文学』, 2010.
- 杨 慧, 「隐秘的书写——1930年代中国东北流亡作家的白俄叙事」,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2014.
- <https://ko.wikipedia.org/wiki/%EA%B0%84%EB%8F%84>. [2020.11.11]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舒群, 彼岸, 祖國, 理想鄉, 東北作家				
Key Words	영문	Shuqun, Nivana, One's Mother Country, Northeast Writer				
<div>Shu Qun's Novel "The Pian-nivana of the Sea" Understood through by Foucault's "Heterotopia"</div> <div>Lee, Kang-In</div> <p>The short novel "The Pian-nivana of the Sea", written by Shu Qun, describes the life of a Korean who leaves behind his homeland and seeks a new life in Shanghai, China, very emotionally and dramatically. Shu Qun is a writer who knows and understands the lives of the Joseon people as a member of the Northeast Writers' Army. With his own experience of diaspora, Shu Qun wanted to portray the diaspora of Joseon people in a sincere manner. That's 'Nivana of the Sea'. In setting the meaning of "pian-nivana", we can see that i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heterotopia" that Foucault had earlier claimed.</p> <p>The space of Shanghai, China, described in "pian-nivana", was one heterotopia for the protagonist who left in search of freedom. But at the same time that his mother visits him to see his son, he becomes another heterotopic who loses his freedom. It works as Heterotopia, a space of openness and closure, where one cannot meet his mother who gets off the ship to avoid the snow of Japan's closed-door government and cannot freely enter the house where his mother is staying.</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강인 / 李康仁 / Lee, Kang-In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대학				
	Em@il	whoru888@naver.com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14